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리뷰

2023.08.(제1호)

신체장애인의 성별에 따른 평생교육 현황 및 개선 과제*

이재경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여성가족정책팀

[재단의 관련 분야 연구 실적]

서울시 장애인정책 특성성별영향평가(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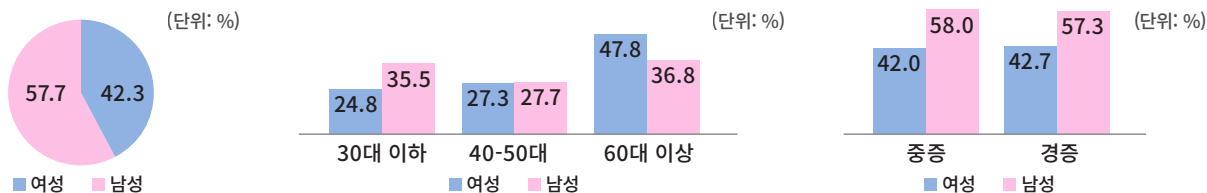
가족 내 돌봄제공자 지원방안 연구: 성인 발달장애인 돌봄을 중심으로(2021)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이자 인적자본생산의 근본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이 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짚어볼 문제이다. 만 18세 이상 장애인 교육 현황을 장애유형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장애인 중에서도 여성 신체장애인의 교육수준이 현저히 낮았다.¹⁾ 2022년 전체 평생교육 학습자 수 대비 장애인 학습자는 0.01%에 불과했으며, 장애 유형 별로는 신체장애인(31.9%)이 발달장애인(68.1%)보다, 여성장애인(42.4%)이 남성장애인(57.6%)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²⁾

이번 호 여성가족정책 리뷰에서는 특히 교육수준이 낮다고 보고된 신체장애인에 초점을 두고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격차와 이들의 평생교육 이용 현황을 성별, 연령, 혼인여부, 자녀유무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서울시 신체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만 18 세 이상 서울시 등록 신체장애인 381 명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대면조사
- 조사 기간 : 2022년 8월 ~ 9월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2022년에 수행한 「서울시 장애인정책 특성성별영향평가」(이재경·기나희, 2022)의 연구결과를 재분석한 자료임

1) 2020년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인 장애인 비율은 56.9%로 비장애인의 23.9%보다 높아 장애인의 교육수준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장애유형별로는 만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중 신체장애인이 발달장애인보다 최종학력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교육수준 중졸 이하인 경우-신체장애인:58.6%, 발달장애인: 40.0%). 신체장애인 중에서도 여성은 남성보다 교육수준이 낮았음(중졸 이하-여성: 74.8%, 남성: 46.6%).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참여 중이라고 응답한 여성 신체장애인은 16.8%로 남성의 40.1%보다 23.3%p 낮았으며, 한달 간 외출경험이 없다는 응답 역시 남성(5.9%)보다 여성(10.2%)이 높았음. 여성 신체장애인이 사회활동이 많지 않은 이유는 신체장애를 가진 여성의 96.0%가 자녀가 있으며, 장애로 인해 경제적 자립(24.6%), 자녀 양육(16.9%), 여가시간 활용(13.4%) 순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2) 2022년 평생교육 통계자료집 참고(국가교육통계센터)

일상생활 속 서울시 신체장애인의 성별 격차 현황은?

○ 교육수준에서의 성별 격차 현황

- 여성 신체장애인은 남성보다 교육수준이 낮음(중졸 이하: 여성 52.8%, 남성 35.9%)
- 구체적으로는 60대 이상(중졸 이하: 여성 83.1%, 남성 63.0%), 자녀가 있는 집단(중졸 이하: 여성 71.0%, 남성: 52.8%)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 수준이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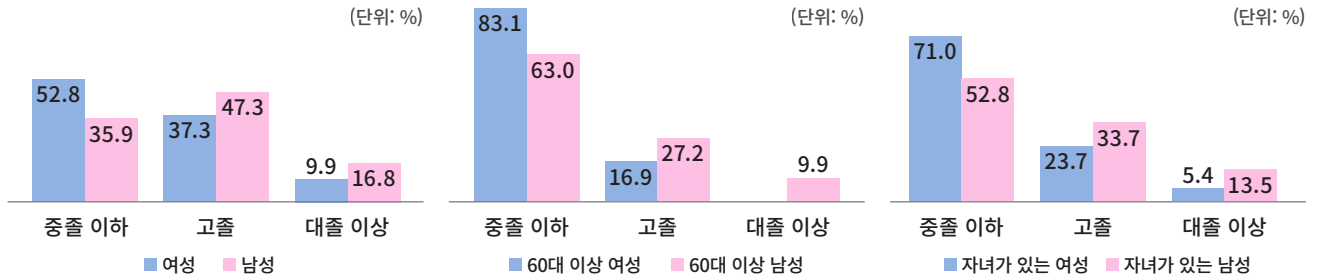


그림 1 | 응답자 특성별 교육수준 현황

○ 문해력과 디지털 기기 활용에서의 성별 격차 현황

- 여성 신체장애인은 남성보다 책, 인터넷 기사, 안내문 등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보임(여성 2.91점/4점, 남성: 3.13점/4점). 또한 무선네트워크 연결(여성: 1.78점/3점, 남성: 2.03점/3점), 동영상 또는 온라인 수업 활용(여성: 1.91점/3점, 남성: 2.09점/3점), 전자책이나 인터넷 기사 접근성(여성: 1.88점/3점, 남성: 2.13점/3점) 등 디지털 기기 활용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혼자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낌³⁾
- 배우자 또는 자녀 유무 역시 신체장애인의 디지털 기기(와이파이 연결, 파일 전송, 문서 또는 자료 작성, 온라인 수업, 전자책 또는 인터넷 기사에의 접근 등) 이용 등에 영향을 미침
- 여성과 남성 모두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집단에서 혼자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보임. 그 이유는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이 있는 신체장애인의 경우 문제 발생시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함께 사는 가족이 도움을 주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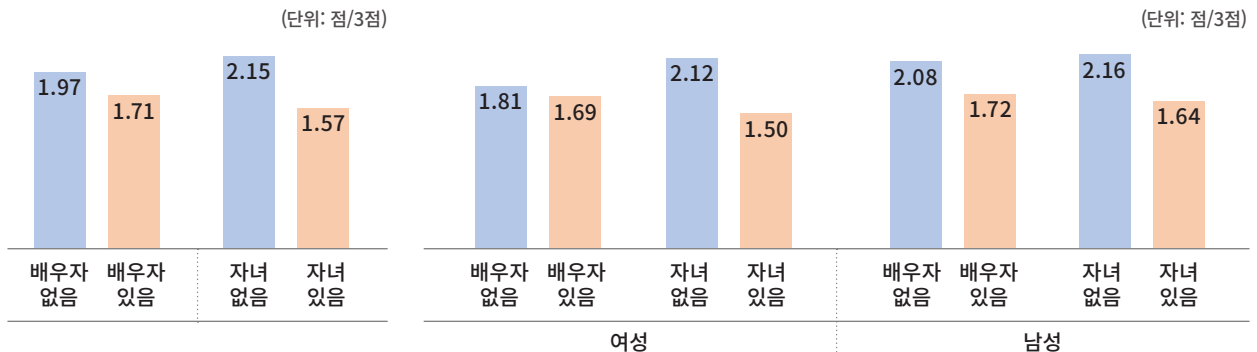


그림 2 | 성별, 자녀유무, 배우자 유무에 따른 디지털 기기 활용의 어려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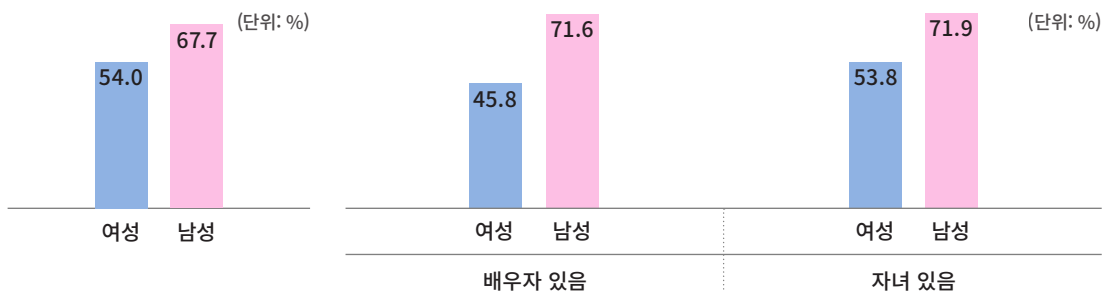
3) 점수가 낮을수록 혼자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4) 이는 2022년 『서울시 장애인정책 특성성별영향평가』 면접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이며 유사한 경향은 고령1인가구 여성에게서도 엿보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2016년 수행한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6080 여성노인 1인가구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의 면접조사에서 고령1인가구 여성은 한 집에서 언제나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는 점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의존 대신 '스스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였음

○ 외출 빈도의 성별 격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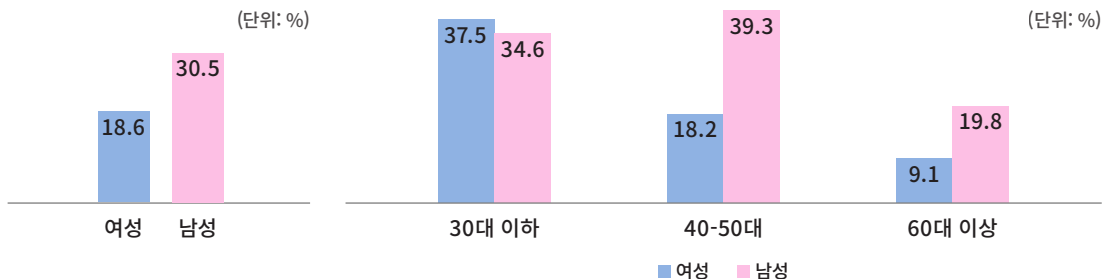
- 일주일 동안 주 5일 이상 외출한다는 항목에서 여성은 54.0%가 그렇다고 응답해 남성(67.7%)보다 13.7%p 낮았음. 이는 여성 신체장애인이 교통수단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정도가 남성보다 높기 때문임
- 여성 중 외출 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3.7%로 남성(47.3%)보다 6.4%p 높았음. 어려운 이유는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리프트, 장애인 배려석 등 편의시설이 부족(26.9%) 하고,집에서부터 교통수단 이용에 이르기까지 이동이 어려우며(23.8%), 장애인 콜택시 등 장애인 전용 교통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21.9%)으로 응답됨⁵⁾
- 외출 빈도는 혼인상태 또는 자녀유무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임.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여성 신체장애인은 동일한 조건의 남성보다 외출 빈도가 낮음. 주 5일 이상 외출하는 빈도를 살펴본 결과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자녀가 있는 여성은 각각 45.8%, 53.8%로 동일 상태의 남성(71.6%, 71.9%)보다 낮았음



[그림 3] 성별 및 배우자 유무에 따른 외출 빈도: 주 5일 이상 외출한다는 응답

○ 경제활동 참여에서의 성별 격차 현황

- 여성 신체장애인은 남성보다 경제활동 참여가 낮은 것으로 확인됨(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여성 18.6%, 남성 30.5%)
- 여성 신체장애인은 30대 이하(37.5%)에서 가장 높게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 남성 신체장애인은 40-50대(39.3%)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그림 4]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 참여 현황

5) 여성 신체장애인은 남성 신체장애인보다 교통수단 편의시설 부족(여성 26.9%, 남성 23.6%), 집에서부터 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이동 (여성: 23.8%, 남성: 20.9%)에 대한 어려움을 높게 인식함

- 경제활동 참여 정도는 혼인여부, 자녀유무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임. 신체장애인은 성별과 무관하게 비혼 집단(34.1%)⁶⁾과 자녀가 없는 집단(31.7%)⁷⁾에서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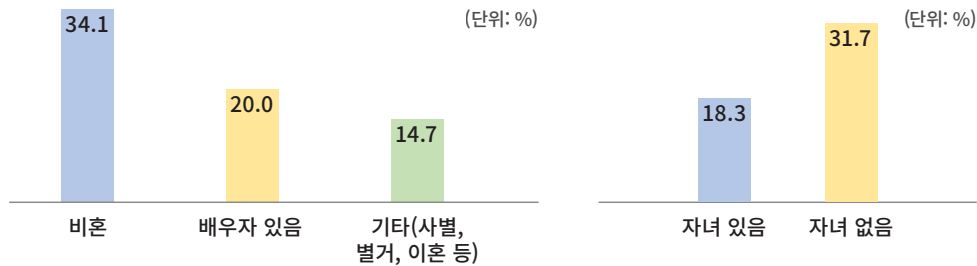


그림 5 | 자녀유무, 혼인여부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 현황

서울시 신체장애인의 성별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현황은?

○ 전국 신체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현황

-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신체장애인의 경우 평생교육 참여 경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3%로 남성 신체장애인(1.6%)보다 높았음
- 성별을 기초로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자녀유무별로 평생교육 참여율 차이는 다음과 같음
 - 30대 이하의 여성 신체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았음
 - 교육수준별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상태별로는 비혼일 때 평생교육 참여율이 높았음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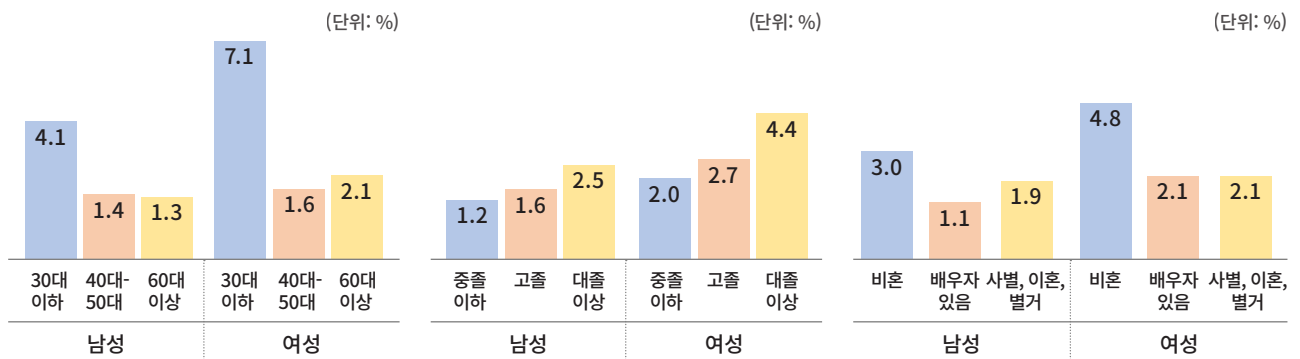


그림 6 |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응답자 특성별 평생교육 참여 현황 :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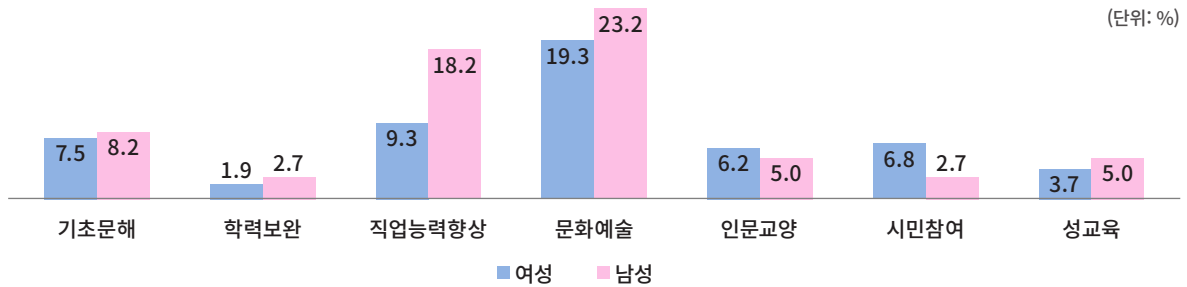
6) 2020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비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64.9%) 비혼인 경우(54.4%)보다 경제활동 참여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됨. 성별로 나누어 혼인상태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2.0%로 남성의 77.7%보다 25.7%p 낮았으며, 미혼인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3.0%로 남성의 55.5%보다 2.5%p 낮았음(출처: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참고, 검색일: 2023. 6. 7.)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C2003&vw_cd=MT_ZTITLE&list_id=A11_2015_1_001_009&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7) 자녀유무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율은 공식적인 통계 확인 불가능

8) 자녀유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현황 분석은 제외함. 남성 평생교육 참여자 중 자녀가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성별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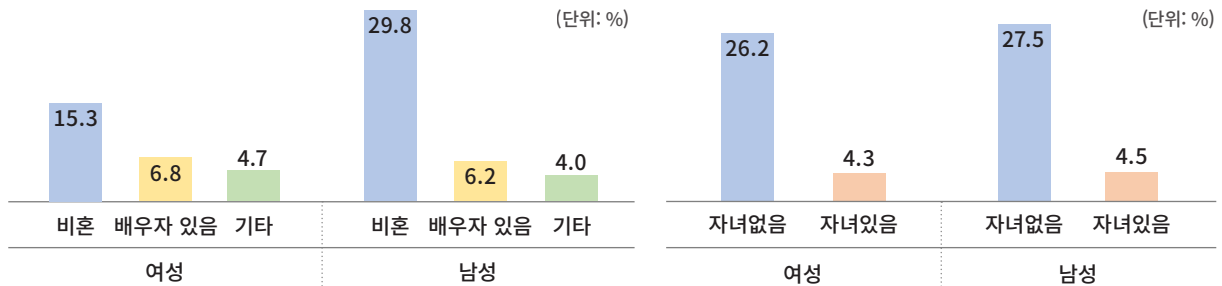
○ 서울시 신체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에서의 성별 격차 현황

- 서울시 신체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현황을 기초문해, 학력보완, 직업능력향상, 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참여, 성교육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봄
- 남성과 여성 신체장애인은 모두 문화예술 교육, 직업능력향상 교육 참여율이 높음
- 그 중 성별 격차가 가장 큰 평생교육 영역은 직업능력향상 교육으로 확인됨. 남성 신체장애인 중 직업능력향상 교육 참여 경험률은 18.2%로 여성의 9.3%와 비교했을 때 8.9%p 차이를 보임



[그림 7] 성별에 따른 영역별 평생교육 참여 현황

- 직업능력향상 교육 참여 경험을 혼인여부, 자녀유무로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 비혼과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직업능력향상 교육 참여율이 높았음. 다만 여성은 혼인 여부와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남성보다 직업능력향상 교육 참여 경험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8] 혼인여부 및 자녀유무에 따른 직업능력향상 교육 참여 비율

- 직업능력향상 교육이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신체장애인의 일자리 유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직업능력향상 교육 참여 경험률이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업능력향상 교육에 참여한 경험률이 있는 신체장애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178배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여성 신체장애인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는 직업능력향상 교육 참여 제고 방안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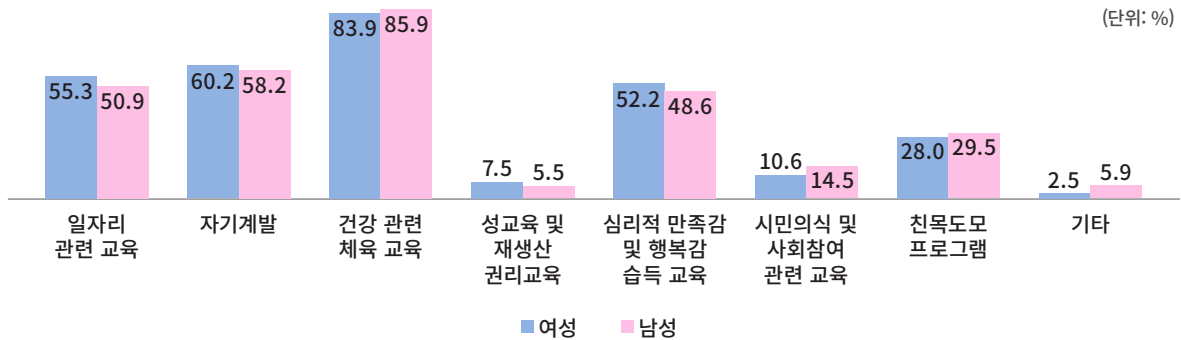
[표 1]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Exp(B)	Nagelkerke R 제곱
경제활동 참여 여부	직업능력향상 교육 참여 경험	2.178**	0.329
	성별(1=여성)	0.690	
	교육수준 1(1=고졸)	3.394**	
	교육수준 2(1=대졸 이상)	24.505***	
	결혼상태 1(1=비혼)	0.536	
	결혼상태 2(1=배우자 있음)	0.673	
	자녀유무(1=자녀 있음)	1.741	

주: *p<0.05,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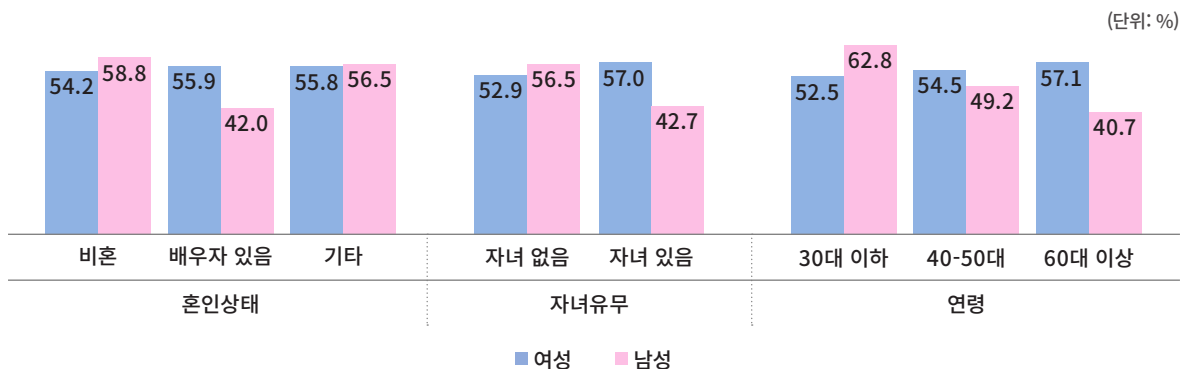
○ 서울시 신체장애인이 원하는 평생교육은 무엇인가?

- 서울시 신체장애인의 평생교육 수요는 건강 관련 체육 교육, 자기계발 교육, 일자리 관련 교육, 심리적 만족감 및 행복감 습득 교육 순으로 나타남
- 성별 격차가 가장 큰 교육 영역은 일자리 관련 분야(4.4%p)로 확인됨



[그림 9] 신체장애인이 원하는 평생교육 내용(중복응답): 성별

- 일자리 관련 교육을 원하는 신체장애인의 특성을 혼인상태, 자녀유무로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음
- 일자리 관련 교육을 가장 원하는 집단은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여성 신체장애인임. 서울시 여성 장애인 중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집단은 일자리 관련 교육을 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해당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짐작케 함
- 여성 신체장애인은 전 연령대 응답자 과반 이상이 일자리 관련 교육을 원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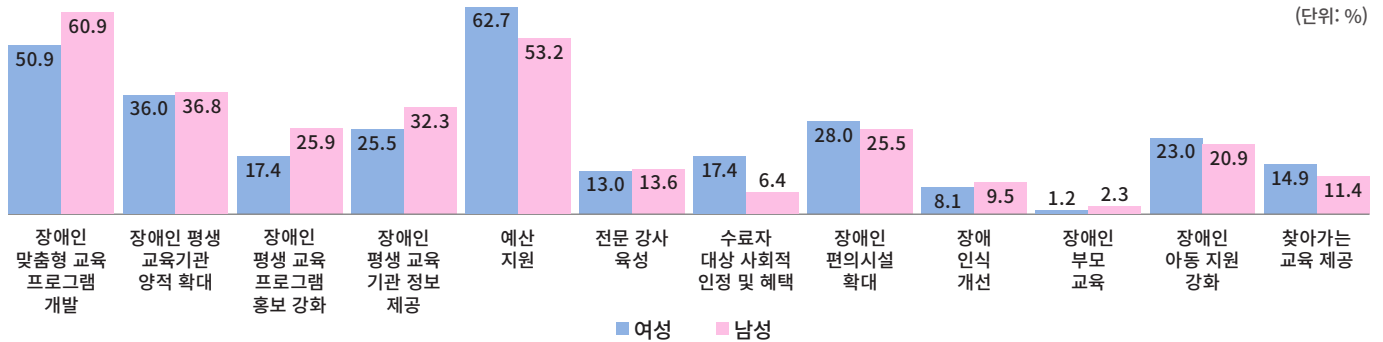


[그림 10] 혼인상태, 자녀유무, 연령별 신체장애인이 원하는 평생교육 성별 격차: 일자리 관련 교육을 중심으로

서울시 신체장애인의 평생교육 확대를 위한 당사자들의 기대는?

- 신체장애인들은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확대를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함(56.7%). 그 다음이 관련 예산 및 지원금 늘리기(57.2%),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양적 확대(36.5%),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관련 정보 제공(29.4%), 평생교육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26.5%),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홍보 강화(22.3%), 장애인 이동 지원 강화(21.8%)의 순으로 확인됨
- 서울시의 노력이 가장 필요한 영역으로 여성은 예산지원(62.7%)을, 남성은 장애인 특화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60.9%)을 응답함

- 여성 신체장애인은 예산지원 다음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50.9%), 평생교육기관 양적 확대(36.0%), 편의시설 확대(28.0%), 기관 정보 제공(25.5%), 이동지원 강화(23.0%)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 남성 신체장애인은 평생교육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이어 예산지원(53.2%), 평생교육기관 양적 확대(36.8%), 기관 정보 제공(32.3%), 교육 프로그램 홍보 강화(25.9%), 편의시설 확대(25.5%), 이동지원 강화(20.9%) 등의 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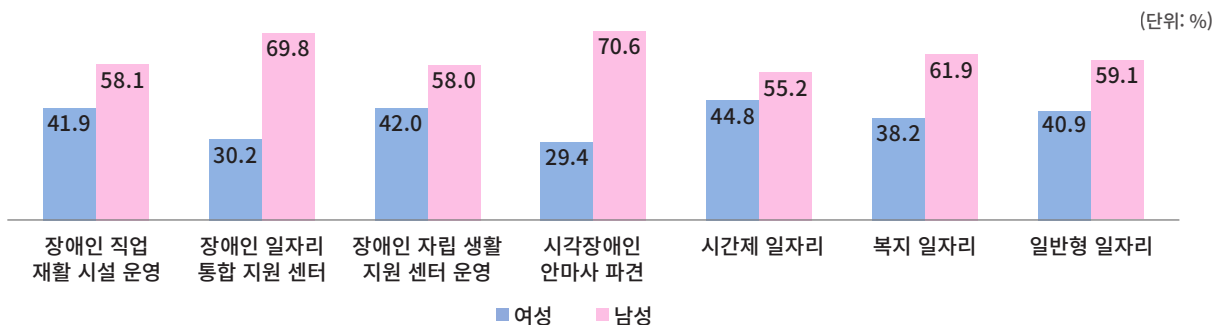


[그림 11] 신체장애인 당사자가 평생교육 확대를 위해 서울시에 기대하는 정책 수요 현황

서울시 신체장애인의 평생교육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강화

- 첫째, 신체장애인 대상 정보화 교육 강화 :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여성 신체장애인은 독해력이 낮고 동영상 또는 온라인 수업 시 디지털 기기를 혼자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특히 외출 시 교통수단 이용이 용이하지 않아 외출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신체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교육 사업을 운영할 것을 제안함. 교육 대상은 “정보화 교육이 필요한 모든 신체장애인”으로, 이는 신체장애인 중 디지털 기기를 혼자 사용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여성과 남성 모두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나왔다는 사실에 기인함
- 둘째, 여성 신체장애인 대상 일자리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여성 신체장애인은 남성보다 평생교육 중 직업능력향상교육 참여 정도가 낮았으나 일자리 관련 교육을 원하는 정도는 남성보다 높았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1) 여성 신체장애인의 일자리 수요 현황을 파악하여 기관별 제공되는 직업능력훈련 교육 내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그림 12] 참고), 2) 일자리 관련 평생교육 제공 시 여성 신체장애인의 외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면 교육과 함께 온라인 교육 병행도 요구됨. 또한 3)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여성 신체장애인의 일자리 관련 교육 요구가 높다는 점에서 이들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예: 기관 내 돌봄 시설 마련 등)의 제공을 제안함



[그림 12]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에서의 성별 격차 현황: 2022년 기준⁹⁾

9) 2023년 서울시 성인지예산서 참고

- 신체장애인의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뿐 아니라 일반 기관에서도 장애 친화 환경 조성과 함께 관련 정보 안내가 필요함. 예를 들어 버스 또는 지하철역에서 해당 기관에 도착하기까지 언덕이 있는지, 장애인 화장실 또는 엘리베이터 유무, 경사로, 점자 블록, 점자 안내판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설치 위치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함. 해당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장애인 전문 기관뿐 아니라 비장애인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관련 기관 이용에 도움이 될 것임
 - 장기적으로는 모든 서울시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평생교육 시설, 직업재활시설, 복지시설 등 장애인이 관련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존 시설 점검을 바탕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확대가 필요함